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8> 계율 없이 하는 참선은 마도일 뿐

36장에서 신해수증(信解修證)을 언급하며 36장까지는 신해(信解)이고 37장부터 수증(修證)을 말한다 고 하였다. 신해는 부처님의 법을 기꺼이 믿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며, 수증은 부처님의 삶을 실천 수행하여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아는(信解-頓悟) 그 자리에서 바로 깨쳐(修證-頓修) 더 이상 공부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돈오돈수이다. 그러나 돈오점수는 선지식의 도움으로 부처님의 세상을 믿고 안 듯하지만(信解-解悟) 확실한 자기 체험이 없기에 수행을 통하여 깨쳐나가는 과정(修證-漸修)이 필요하다. 따라서 돈오점수를 해오점수(解悟漸修)라고 말하기도 한다. 38장에서는 참선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帶姪修禪 如蒸沙作飯 帶殺修禪 如塞耳 叫聲 帶偷修禪 如漏卮求滿 帶妄修禪 如刻 糞爲香 縱有多智 皆成魔道

다른 사람들과 좋지 않은 어두운 관계를 맺으면서 참선을 하는 것은 모래를 찌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으며, 남의 소유물을 몰래 훔치면서 참선을 하는 것은 깨진 그릇에 가득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고, 거짓말을 하면서 참선을 하는 것은 뱀 새나는 똥으로 향기로운 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도 같다. 이런 참선은 설명 지혜가 있더라도 모두 마도(魔道)를 이룰 뿐이다.

원문의 '대유(帶 姪)'은 음행(姪 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좋지 않은 어두운 관계를 맺는 것이고, '대살(帶 殺)'은 살생(殺生)으로서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며, '대투(帶 偷)'는 도둑질로서 남의 소유물을 몰래 훔치는 것이다. '대망(帶 妄)'은 거짓말로써 특히 여기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참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도 '재물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거짓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엄청난 거짓말'을 말한다. 이 네 가지 계율을 잘 지켜야 마음이 고요한 선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으며, 마음이 고요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계율과 선정과 지혜는 하나의 몸과 같아서 같이 배워 나가야 하므로 삼학(三學)이라고 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계율 선정 지혜는 하나 계 지키면 늘 고요하고 부처님 향기 뿜어 나와

此明 修行軌則 三無漏學也. 小乘 乘法爲戒 粗治其末 大乘 攝心爲戒 細絕其本 然則 法戒 無身犯 心戒 無思犯也. 淫者斷清淨 殺者斷慈悲 盜者斷福德 妄者斷眞實也. 能成 智慧 縱得六神通 如不斷殺盜淫妄則 必落 魔道 永失菩提正路矣. 此四戒 百戒之根故 別明之 使無思犯也. 無憶曰戒 無念曰定 莫妄曰慧. 又戒爲禪戒 定爲禪戒 慧爲殺戒. 又戒器完固 定水澄清 慧月方現. 此三學者 實爲萬法之源故 特明之 使無諸漏也. 靈山會上 豈有無行佛 少林門下 豈有妄語祖.

이 단락은 수행의 본보기로서 '번뇌를 없애는 제정해(戒定慧)' 삼학(三學)을 밝힌다. 소승은 눈에 보이는 법만 받아 계율로 삼아서 대중 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다스리지만 대승은 잘못 쓰는 마음을 거두는

것을 계율로 삼아서 세밀하게 그 잘못의 근원을 끊어버린다. 그러나 곁으로 나타난 법으로 지키는 계율은 몸으로 여기는 일이 없겠지만, 마음으로 지키는 계율은 생각조차 범하는 일이 없다.

사람들과 어두운 관계를 맺는 것이라 맑고 깨끗한 성품을 굽는 일이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없애는 것이다. 남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은 부덕을 없애는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실성을 굽는 행위이다. 지혜를 완성하여 육신통을 얻을지라도 네 가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마도(魔道)에 떨어져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 이 네 가지 계율이 온갖 계율의 근원이 되므로 따로 분명하게 드러내 생각조차 범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한 것이다.

마음 바탕에 본말이 일어날 아무런 흔적도 없는 것을 계율이라 하고, 헛된 생각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 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계율이란 그릇이 울고고 굳어서 선정이라는 물이 점차 맑고 깨끗해져야 지혜라는 동근 달이 비로소 나타난다. 이 제정해 삼학이 진실로 온갖 법의 근원이 되므로 특별히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어 모든 번뇌를 없애게 한다.

육신통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여섯 가지 신통력을 말한다. 첫번째 신통통은 자유자재하게 원하는 곳에 몸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두번째 천안통은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이 생사에서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걸림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세번째 천이통은 육도 중생이 말하는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네번째 타심통은 육도 중생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다. 다섯번째 수명통은 자신과 육도 중생들의 많고 많은 전생 일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다. 여섯번째 누진통은 중생계의 모든 번뇌를 끊었으므로 다시 삼계의 고통을 받지 않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통을 갖추었음에도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뿐더러 부처되는 길조차 영원히 끊기는 것이다.

■원문 스님(송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ust.org)

웃음 × 웃음 = 행복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다비(茶毘)

중국 사람들은 임종하기 직전에 이 한 마디를 던지고 떠난다. '짜이찌엔!(再見)' '다시 만나자'는 짧은 인사말만을 남긴다. '유신은 어떻게 하고, 세상살이는 이렇게 하고, 이것저것 조심하고...' 자질구레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메시지가 강렬한 이 말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의 장례식인 다비(荼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곳에 묻을 필요도, 성대하게 장례를 치를 수도 없이, 그냥 시신을 태워버리는 화장(火葬)을 하기 때문이죠. 허물어진 육신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다는 무집착의 의미이기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간결하고 명징하게 불자들에게 전달되는 대목입니다. 하긴 부처님은 인도 쿠시나गर에서 열반에 들 때 '생사가 돌아 아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삶과 죽음이 돌아 아닌 이치를 자유자재하게 쓰고 떠나신 것이요.

다비는 팔리어 '자피타(jhapiṭa)'의 한자 표기입니다. 의미는 '태우다'로, 화장을 가리킵니다. 다비의 영향은 인도문화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자 제자들이 논의해 화장을 한 데에서 유래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1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9강 장엄정토분 제10

10장에서 다시 이야기는 변주된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다른 장면, 다른 무대를 설정하고, 문답이 계속되지만, 메시지는 앞에서 거둬들었던 강조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다.

경문 전체를 우선 제시하고, 각 구절을 붙인 혜능의 구절을 붙여주었다. 구절의 원문은 이번에는 좀 격식을 달리하여, 전통적 현토를 골랐다. 번역과 대조해보면 어디가 같고 다른지 출입(出入)을 짐작할 것이다.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 경문 번역
- 佛告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昔在然燈佛所, 於法有所得不, 不也, 世尊. 如來在然燈佛所, 於法實無所得.

부처가 수보리에게 일렀다. "네 생각에 어떠나, 여래가 연등불의 거소에서, 진리를 얻은 바가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불의 거소에서, 진리를 실체로는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 須菩提, 於意云何. 菩薩莊嚴佛土不, 不也, 世尊. 何以故. 莊嚴佛土者, 即非莊嚴, 是名莊嚴.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나,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 장엄은 실체로는 장엄이라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장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 是故,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生清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而生其心.

"그래서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은 그렇게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형태'에 쫓달리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접촉', 그리고 '편견'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어떤 토대에도 의존함이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 須菩提, 譬如有人, 身如須彌山王, 於意云何, 是身爲大不. 須菩提言, 甚大, 世尊. 何以故. 佛說非身, 是名大身.

"수보리야, 예컨대, 허우대가 수미산만한 사람이 있다 하자. 이 사람의 몸은 크다고 해야겠지?" 수보리가 말했다. "아주 큼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 몸은 실체 크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조건 하에서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혜능의 구절 (1): 연등불의 수기

- 佛告須菩提, 於意云何. 如來昔在然燈佛所, 於法有所得不, 不也, 世尊, 如來在然燈佛所, 於法實無所得.

[혜능] 부처께서는 수보리가 혹 '법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몰라, 확인 차 물어보았

다. 수보리는 이 뜻을 알고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연등불은 석가모니 당시에 수기(授記)를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수보리에게 묻기를, '내가 스승의 처소에서 법을 들으며, 확득한 법이 있다고 보느냐'고 했더니, 수보리의 대답이 "진리(法)는 스승으로 하여 얻었으며, 실제 확득한 바는 없습니다"였다. 그가 다만 깨달은 것은 자신이 본래 청정하며 본래 번뇌 장애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적이상존(寂而常照)이 곧 자성불(自性佛)이라는 이치 하나이다. 잊지 말라. 세존

이 연등불의 거소에서, 법에 실로 얻은 바가 없다는 것을... 여래법은 비추는 해와 같아 천지 가이 비추지만, 그것을 취할 수는 없나니라.

[六祖] 佛이, 恐須菩提가 有得法之心이라 하사, 爲遣此疑故, 問之어시늘, 須菩提가 知法無所得하사, 而白佛言하사대, 不也라 하시니라. 然燈佛은 釋迦牟尼佛의 授記之師라, 故로 問須菩提하사대, 我於師處聽法에 有法可得不하야시늘, 須菩提가 即 講法即因師開示라, 而實無所得이라 하시니, 但悟自性이 本來清淨하며, 本無塵勞하야 寂而常照하면, 即自成佛이니, 當知世尊이 在然燈佛所하사, 於法에 實無所得也라, 如來法者는 譬如日光이 明照하야, 無有邊際라 而不可取니라.

혜능의 구절 (2): 불국토의 장엄

- 須菩提, 於意云何. 菩薩莊嚴佛土不, 不也, 世尊. 何以故. 莊嚴佛土者, 即非莊嚴, 是名莊嚴.

[혜능] 불국토는 청정하여 이미지도 형태도 없으니, 어떤 물건으로 능히 장엄(莊嚴)하리요. 다만 이 정혜(定慧)의 보물로 임시로 장엄이라 일컫느니라. 장엄에 셋이 있으니 제1은 '세간의 불토(世間佛土)'를 장엄함이니, 절을 짓고 경을 베끼며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이 이것이요, 제2는 '몸의 불토(身佛土)'를 장엄함이니, 모든 사람을 보되 널리 공경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요, 제3은 '마음의 불토(心佛土)'를 장엄함이니, 마음

면 卽佛土淨이라, 念念常行無所得心이 是也니라.

혜능의 구절 (3): 청정심, 토대 없는 마음

- 是故, 須菩提, 諸菩薩摩訶薩, 應如是生清淨心, 不應住色生心, 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應無所住, 而生其心. [혜능] 수행인은 다른 사람을 시비해선 안 되며, 또 자신이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깔며 공부를 않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다. 자성(自性)이 늘 지혜를 발하여, 평등

색에 토대하여 마음을 내는 것은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것과 같고, 색에 토대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은 하늘에 구름이 없어 일월(日月)이 길게 비치는 것과 같다. 색에 토대해서 내는 마음은 망념(妄念)이고, 색에 토대하지 않고 내는 마음은 진지(眞智)이다. 망념이 나면 즉 어둠에 덮이고, 진지가 비추면 즉 천지가 밝아진다. 밝으면 번뇌가 생기지 않는데, 어두우면 육진(六塵)이 우르르 일어난다.

[六祖] 諸修行人이 不應說他是非니, 自言我能解脫하야, 心輕未學이던, 此非清淨心也니, 自性에 常生智慧하야, 行平等慈하야 下心恭敬一切衆生이, 是修行人の 清淨心也니라. 若不淨心하고, 愛著清淨處하야 心有所住하면, 卽是著法相이라. 見色著色하야 住色生心은 卽是迷人이요, 見色離色하야 不住色生心은 卽是悟人이니, 住色生心은 如雲蔽天이요, 不住色生心은 如空無雲하야, 日月이 長照하야, 住色生心은 卽是妄念이요, 不住色生心은 卽是眞智니, 妄念이 生하면 卽煩惱가 不生이요, 暗하면 卽六塵이 競起니라. (未學之末字는 恐當作末字)

혜능의 구절 (4): 위대한 몸이란

- 須菩提, 譬如有人, 身如須彌山王, 於意云何, 是身爲大不. 須菩提言, 甚大, 世尊. 何以故. 佛說非身, 是名大身.

[혜능] 육신이 비록 커도, 마음이 쪼잔하면 '큰 몸'이라 할 수 없고, 안 마음의 국량이 우주처럼 넓어야 비로소 '큰 몸'이라 할 수 있다. 이 몸품이는 수미산만큼 커도 마침내 '크다'고 하기 어렵다.

[六祖] 色身이 雖大나, 內心量小하면 不名大身이요, 內心量大하야 等虛空界하야 大方大身이니, 色身은 縱如須彌라도 終不爲大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

누가 불국토를 장엄하는가



이 깨끗하면 곧 불토가 깨끗해지기에, 녀념(念)이 언제나 무소득심(無所得心)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다.

[六祖] 佛土清淨하야, 無相無形하니, 何物이 而能莊嚴耶아, 唯以定慧之寶로, 假名莊嚴이라, 莊嚴이 有三하니, 第一莊嚴은 世間佛土니, 造寺寫經과 布施供養이 是也요, 第二莊嚴은 身佛土니, 見一切人에 普行恭敬이 是也요, 第三莊嚴은 心佛土니, 心淨하

한 자비를 행하며, 하심(下心)하여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수행인의 청정심이다. 만약 스스로 그 마음을 정결히 하지 않고, 청정한 장소를 애착하여, 마음에 토대(住)를 가진다면, 이는 법상(法相)에 집착하는 것이다. 색(色)을 보고 그에 집착하여 그 토대로 마음을 내게 되면 '혜능의 사람(迷人)'이요, 색을 보되 색을 떠나 거기 토대하지 않고 마음을 내면 '깨달은 사람(悟人)'이다.